

# 광주, 에너지·자동차 위주 89건 2500억 전남, '차세대 車 기술개발' 3150억 필요

## 내년도 신규 국비사업 내용과 전망

### 대부분 500억 이내 작은 사업들 정부 지출 억제로 국비확보 난망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J프로젝트 이후 광주·전남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전무한 가운데 그나마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중인 사업들도 국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세수 부족,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정부가 신규사업을 억제하면서 오히려 지난해보다 못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24일부터 본격화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광주시, 전남도, 지역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 2017년 국비 신규 사업 89건 2596억원 =광주시의 내년도 국비지원 신규사업은 89건에 2596억원이다. 대부분의 신규사업 규모는 총 사업비 200억~5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에너지 생산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내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총 사업비 490억원) ▲광·전차 융합 전기자동차 생산기반 구축(460억원) ▲대형 폐전지 재생 및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대형전지 시험평가 플랫폼 구축(420억원) ▲북한문화센터 조성 및 관

광자원화 사업(420억원) 등이 그나마 규모가 있는 사업으로 꼽힌다.

이밖에 ▲첨단융합콘텐츠 제작·유통지원 사업(382억원)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조성(300억원) ▲초전도 장비개발 고차기장 인프라 구축(320억원) ▲자동차 애프터마켓 부품 종합시험센터 구축(230억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포함됐다.

대부분의 신규사업은 광주시가 역점으로 추진중인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구축(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구축)과 문화관광산업·에너지밸리 구축 등과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다.

현재로서는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등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가 이처럼 대형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광주 미래먹거리 사업으로 꼽고 있는 친환경자동차와 에너지밸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구축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가 3450억원으로, 계속사업인 만큼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비도 1935억원으로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대형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 2017년 국비 사업 144건 4025억원 =전남의 신규사업은 144건에 사업비는 4025억원(2017년 건의)이다. 방향은 크게 ▲기존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 ▲신규 미래산업 발판 마련 ▲국가기반시설 및 국립 공공기관 신속한 조성 ▲기존 국비 미지원

사업에 대한 지속적 요청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국가기반시설을 제외한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중 가장 부각되는 것은 '차세대 고성능/고효율 자동차 기술개발(시스템산업 거점기반 지원)사업'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F1 경주장이 있는 영암 삼호읍에 기술개발 15건, 플랫폼 개발 5건, 평가기반 구축 등에 국비 1900억원을 포함해 모두 315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내년 산업지원총합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24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고기능성 금속소재 가공 생태계 구축사업(2017~2021)이 있다. 전남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해 생산중인 '고강간강'이 고강도, 고연성, 초경량 등 기계적 성질은 우수하나 가공이 어렵다는 점에서 그 가공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내년에 정부부처에 예타 대상 사업 선정과 설계비 15억원 지원을 받겠다는 것이 전남도의 복안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부처에서 이들 신규사업 상당수가 '물 먹은' 상태다. 해양수산용복합밸트조성 사업 수산식품융합단지 조성 400억원(내년 요구액 4억원), 국립 김산업 연구소 280억원(35억원),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돌핀시설건설 327억원(19억원) 등이 모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2000년대 이후 광주·전남 대형 프로젝트 사업 실적표

### 여수해양엑스포·광주U대회 '성공' F1 부채 산더미 J프로젝트 '부진'

2000년대 이후 대형 프로젝트사업이라고 하면 광주는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전남은 J프로젝트, F1, 여수세계해양엑스포 등을 투자하는 등 554억원의 열세가 투입돼 있다. 그러나 구성지구의 공정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삼호지구는 지난 2014년 9월 45억 골프장이 착공됐을 뿐이다. 삼호지구는 서류상 존재하는 카보 주식회사가 여전히 사업자로 돼 있다.

반면 2012년 여수세계해양엑스포는 여수를 일약 세계적인 관광도시의 반열에 올려서 해 했다. 지난해에는 130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여수는 보고 있을 정도다. 가장 취약한 것으로 여겨졌던 도로와 철도 등 SOC도 크게 좋아진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고급 숙박시설, 음식점 등이 들어서 세계 각국의 여행객들을 만족시키고 있어 앞으로 기대감이 높다. 다만 엑스포장의 사후활용 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역시 140개국 1만7056명이 참가한 지구촌 축제로, 사업비를 당초 8171억원에서 6056억원으로 2115억원을 절감하면서도 광주라는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알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 '광주U대회 개최의 경제적 효과'에 따르면 생산유발 효과 335275억원, 3만 900명 등의 고용유발 효과 등 경제적 효과도 발생했다.

사남해안기업도시, 즉 J프로젝트 역시 사업자의 자금난, 추가 투자 난항 등으로 장기간 지체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05년 이후 구성지구에

90억원, 삼호지구에 75억원, 삼포지구에 173억원 등 모두 338억원을 출자한 바 있다. 전남개발공사도 구성지구에 90억원, 삼포지구에 126억원 등 216억원 등을 투자하는 등 554억원의 열세가 투입돼 있다. 그러나 구성지구의 공정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삼호지구는 지난 2014년 9월 45억 골프장이 착공됐을 뿐이다. 삼호지구는 서류상 존재하는 카보 주식회사가 여전히 사업자로 돼 있다.

반면 2012년 여수세계해양엑스포는 여수를 일약 세계적인 관광도시의 반열에 올려서 해 했다. 지난해에는 130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여수는 보고 있을 정도다. 가장 취약한 것으로 여겨졌던 도로와 철도 등 SOC도 크게 좋아진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고급 숙박시설, 음식점 등이 들어서 세계 각국의 여행객들을 만족시키고 있어 앞으로 기대감이 높다. 다만 엑스포장의 사후활용 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역시 140개국 1만7056명이 참가한 지구촌 축제로, 사업비를 당초 8171억원에서 6056억원으로 2115억원을 절감하면서도 광주라는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알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 '광주U대회 개최의 경제적 효과'에 따르면 생산유발 효과 335275억원, 3만 900명 등의 고용유발 효과 등 경제적 효과도 발생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미르재단 초대 이사장을 지낸 김형수 연세대 교수가 휠체어를 타고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날 K스포재단 김필승 이사, 두 재단의 설립 허가 등에 관여한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공무원 1명 등 핵심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했다. /연합뉴스

## 미르·K재단 수사 속도...김형수 前이사장 소환 조사

미르재단과 K스포재단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는 휴일인 23일도 미르재단 초대 이사장을 지낸 김형수 연세대 교수 등 핵심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이사장은 작년 10월 미르재단이 출범할 때 이사장으로 초빙됐다. 그는 미르재단 설립과 운영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차은택(47) 광고 감독이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을 다닐 때 은사다.

실제로 차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들 '존경하는 스승'으로 여러 번 부른 적이 있어 그가 차씨의 인연으로 미르재단 이사장 자리를 맡게 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김 교수는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미르·K스포재단에 관한 의혹이 증폭되자 올해 9월 2일자로 미르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미르재단의 설립 및 초기 운영 과정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김 전 이사장을 상대로 미르재단의 인사, 운영 과정에 차씨가 관여했는지를 캐물었다.

수사팀은 또 김 전 이사장에게 미르재단 운영에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최서원외모 개명) 씨가 개입했는지도 조사했다. 아울러 이날 K스포재단 현 이사 1명과 두 재단의 설립 허가 등에 관여한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공무원 1명도 오후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 국회 '우병우 불출석' 고발키로...실효성은 미지수

### 벌금형·불기소 처분 그칠 듯

여야 3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지난 22일 사실상 합의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 수석에 대한 검찰 고발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발 혐의는 '국회에서 의증 및 감정에 관한 법률' 13조에 규정된 '국회 모욕죄'이다. 또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검찰은 그동안 기소를 하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게 관례처럼 굳어져 왔다. 기관 증인에 대한 검찰 고발 자체가 거의 없었고 가장 최근에는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고발이 있

었지만 결국 불기소로 처리됐다.

지난 2013년 국회가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때 청문회에 불출석한 홍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홍 지사도 "국회가 지자체의 고유 사무권한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반발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고, 결국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같은 성격의 기관증인인 민정수석 역시 비슷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일반 증인의 경우에는 법적 제재가 이뤄지긴 했지만 통상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났다. 지난 2013년 국회 정무위 국감에 불출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1년 법사위와 정무위 국감에 나오지 않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행길의 즐거움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비행기보다 오래 타는 버스는 이제 그만~!**  
**이제부터 편안하게 떠나세요**  
**무안출발은 조이투어로~**

추천 1	무안 → 일본(기타큐슈) 직항 전세기 [12월 16일~2월 26일/3박4일]	
01 [에어텔] 기타큐슈(비즈니스호텔 1박+항공)	4일	268,000원~
02 [초특가] 규슈 관광(벵부/유후인/후쿠오카)	3박4일	548,000원~
03 [실속] 규슈 관광(벵부/유후인/후쿠오카)	3박4일	698,000원~
04 [품격] 규슈관광(스지유고급료칸 숙박/벵부/유후인/후쿠오카)	3박4일	838,000원~
05 [품격] 나가사키/가라초 우레시노 료칸	3박4일	838,000원~
06 [품격] 기타큐슈 야마구치/미야지마	3박4일	838,000원~
07 [품격] 남큐슈 미야자키/가고시마	3박4일	998,000원~

추천 2	무안 → 일본(오사카) 직항 전세기 [1월 27일~2월 26일/3박4일]	
01 [에어텔] 오사카 (게스트하우스 1박+항공)	4일	428,000원~
02 [실속] 오사카/나라/교토/고베	3박4일	989,000원~
03 [품격] 오사카/나라/교토/고베	3박4일	1,198,000원~
04 [고품격] 오사카/교토/와카야마/시라하마	3박4일	1,198,000원~
05 [고품격] 오사카/북해도/도야/오타루	3박4일	1,398,000원~

추천 3	무안 → 라오스 직항 전세기 [12월 28일 ~ 1월 21일/3박5일]	
01 [육로] 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3박5일	1,398,000원~
02 [항공] 비엔티엔/루앙프라방	3박5일	1,498,000원~
03 [항공] 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3박5일	1,548,000원~
04 [골프+관광] 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3박5일	1,798,000원~

추천 4	무안 → 대만 직항 전세기 상품 [12월 7일 ~ 2월 26일/3박5일]	
01 [실속] 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3박5일	699,000원~
02 [품격] 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3박5일	799,000원~
03 [실속] 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3박5일	899,000원~
04 [품격] 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3박5일	999,000원~

추천 5	무안 → 다낭 직항 전세기 상품 [12월 30일 ~ 2월 24일/3박5일]	
01 [관광] 다낭+호이안+후에	3박5일	1,149,000원~
02 [골프] 다낭 골프 54홀	3박5일	1,649,000원~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이탤리언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공동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여행:1억원, 국내여행: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공동편: 항공 및 선박, 전열버스/전지역 ●싱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권리 가입업체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없음/없음/기타)이외의사외,선박관광,국공 비비행 별도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